

기도

1.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해주셨던 순간을 나눠주세요.

신앙

시편 18편 -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승전가로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은 것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 왕이 되고 난 후, 범죄한 이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고 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구절을 제외한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하다.



내 의를 따라 갚아주심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내 의를 따라 갇아주심

시편 18편 24-28절 (찬15장, 214장)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도 받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모든 원수들과 사울왕에게서 건져 주신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24-26절).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갇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갇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24절). 내 의를 따라 갇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만큼 갇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사랑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첫째,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25절a).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십니다(25절b). 완전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셋째,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26절a). 깨끗하다는 단어는 '쫓개다', '분리하다', '갈라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쫓개고, 분리하고, 갈라내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보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종일 신음하며 고통을 느꼈습니다(시32:3-4).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듣고 나서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할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했고,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이 보입니다(26절b). 사악한 것은 거짓되고 빼돌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탕자도 먼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끝까지 기다렸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로운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27-28절).

'의로운 자'는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27절). 우리가 믿음으로 곤고한 백성처럼 겸손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눈을 낮추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회개시키고, 위로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28절). 등불을 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빛이 역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빛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말 아래 두거나 등경 아래 두기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이 사라지고, 죄가 드러나고, 고침 받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내 의를 따라 갇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손을 내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해주시고, 빛을 비추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